

## 아버지의 남성

- 김성목 장로

### 1. 남성을 지탱하는 네 가지 요소

남성 학자들은 남자다움을 지탱시켜 주는 네 가지 기둥이 있는 데, 바로 그것은 왕, 전사, 스승, 친구로서의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왕은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권위의 사람입니다.

둘째, 전사는 왕의 명령을 준행하며, 준동하는 적들을 맞아 싸웁니다.

셋째, 스승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양육자입니다.

넷째, 친구는 나와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아끼고, 깊이 사랑하는 사이이며, 약속을 지키는 사이입니다.

이 네가지 기둥, 즉 왕, 전사, 스승, 친구가 진정한 남자 됨, 즉 남성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이 네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2. 남성 상실의 원인

아버지들이 남성을 성실하게 된 근본 원인은 한국적 남성문화의 잘못된 영향력 때문입니다.

한국의 남성문화

#### 1) 체면 문화

체면 문화는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 때문에 조정되어지는 문화

체면 문화는 자신을 숨기는,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수치문화를 낳았습니다.

체면 문화의 부정적 현상으로 '괜찮아' 병과 '기죽지마'의 병을 낳았습니다.

체면 문화는 권위주의를 낳았습니다.

체면 문화의 부정적 현상으로 전인격적 만남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 2) 일 문화

여자는 관계 중심, 남자는 일 중심

현대를 사는 남성들은 "나는 일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WORKAHOLIC" 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작한 돈 벌이로서의 일이었지만, 아버지를 일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 문화

일 문화의 부정적인 현상은 일 지상주의를 초래하였고, 남성들의 출세 지향적

성향과 맞물리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잘못된

음주 문화와 섹스 문화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본인의 인격과 다른 사람과

특히 가족 간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하였습니다.

### 3) 음주 문화

관계를 위해서는 꼭 술 한잔해야 하는 문화.

술 없이 어떻게 남자들이 얘기할 수 있나 하는 문화.

술 없이 속마음을 얘기할 수 없는 잘못된 체면문화의 유산

"사나이의 통은 술통과 비례한다."

이러한 음주 문화의 부정적 영향은 퇴폐적인 섹스와 음담패설의 문화를 동반하고, 많은 남성들을 유혹하고,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 4) 섹스 문화

여성들은 관계를 위하여 섹스를 하고,

남성들은 섹스를 위하여 관계를 맺는다.

잘못된 양반 문화, 즉 영자를 몇 명이나 거느리느냐로 남자다움을 평가하던

그런 문화의 배경 속에 강한 성이 강한 남성의 척도로 잘못 인식..

잘못된 성문화는 향락산업, 퇴폐 음란 산업의 엄청난 양산을 초래하고,

여성을 성의 도구로 전락.

부녀자 납치라는 인신매매범, 청소년 매춘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

### 5) 레저 문화

낚시과부, 골프과부, 테니스과부 등이 의미하듯이 남성 위주의 레저 문화는 가족간의 관계를 파괴.

모이면 고스톱, 집에 돌아와서는 TV를 보는 문화적 풍토에서 대화가 사라지고 결국 관계가 성장하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 6) 폭력 문화

가정은 폭력의 산지

학교는 폭력의 온상

군대는 폭력의 실험장

사회는 폭력의 현장

TV의 폭력미화, 청소년들이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동경

## 3. 남성 회복의 길

### 1) 책임감의 회복

가. 자신에 대한 책임

나. 가정에 대한 책임

다. 교회에 대한 책임

라. 사회에 대한 책임

- 수신제가 치교 평천하 -

## 2) 성결의 회복

고린도전서 10:5~11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명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남성의 성결의 세 가지 영역

### 가. 성적인 성결

살전 4:3~5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고전 6:18~20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 나. 삶의 성결

롬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 17: 15~19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  
하였삽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 5: 13~16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 영적인 성결

엡 6: 10~13

"종말로 너희가 주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  
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벧전 5: 8~9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기니라."

3) 지도력의 회복

엡 5: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모의 구주시니라."

마 20:27~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4) 사랑의 회복

요일 4: 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엡 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 4. 남성의 모델

우리의 바람직한 아버지의 남성상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셨지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을 당하셨지만, 결코 죄에 빠지지 않으시고 성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결코 좌절하시거나 감상적이시지 않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에는 분노하셨지만,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과 섬김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은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진정한 남성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우리 아버지와 남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즉 사랑과 공의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남편으로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고전 16:13~14***